



이철승

아름다움 위해 그리고, 쓰고, 기업을 디자인하는...  
말의 근육과 눈을 가진 사람

그는 케이크 대신 떡을 준비했고, 옥양목으로 만든 꽃타레를 준비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손에 꽃 잡고' 기쁨을 나누는 이벤트를 연출했다. 기타리스트 오승국 씨의 기타 독주 역시 가을 저녁의 화랑을 낭만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했다.



이청승(57)은 경영도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는 또 약관도 되기 전인 열여덟 대학생 신분으로 출판사 문갑사를 창업했던 벤처적 승부사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개인전을 연 중견화가이자 에세이스트다. 곧잘 말馬을 화재畵材로 삼는 그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있는 것을 보면 늘 달리기를 소망하는, 군살 한 점 없는 말과 닮았다는 느낌이 저절로 든다(그는 흥익대 미대 출신으로, 여기로 그림을 그리지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말은 역동적인 동물입니다. 힘차면서도 섬세한 근육의 생명체지요. 그러나 내가 그리는 말은 대개 고독하게 질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화상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나의 내면에는 맑은 회한과 방랑의 심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언술에는 기업경영인 행정가 예술가의 길을 함께 걸어온 한국남자 이청승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정좌定座해 있다. 그는 말처럼 역동적이기를 원하면서도 달리기의 의미를 곱씹는 사유의 시간을 원하는 것이다.

그의 경영자적 코드는 이런 지점에서 분석돼야 한다. 그는 화가인 것과 무관하게, 경영자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미지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에게 디자인은 첨단기술이며, 생산성의 첩병이다.

“현대는 소비자 중심 시장입니다. 원가가 중요한 시대에서 품질이 중요한 시대로, 다시 서비스가 중요한 시대를 거쳐 디자인과 이미지로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고정된 의식의 틀을 깬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디자인에 관한 한 그의 철학은 확고하다. 지금은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지만 한국폴라를

직접 경영할 때 그는 사옥을 지으면서 각 층에 샤워실을 설치했다. 업무를 보는 데 창의력이 생기지 않으면 먼저 손을 씻고, 그래도 개운치 않으면 세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목욕을 하라는 의미에서였다. 이것은 사옥의 외형과 상관없이 기능을 새롭게 디자인한 이청승만의 작품이었다. 한국폴라는 IMF관리체제가 되기 전까지 연간 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알짜배기 회사로 성장했고 외환위기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일본에서 연리 2퍼센트에 1천만 달러의 민간차관을 빌려 줄 만큼 내실 있는 회사로 평가됐다. 한국폴라가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개의 화장품을 주문해도 배달해 주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반품을 해도 환불해 주는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완전한 소비자 중심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창업했던 게 문갑사라는 출판사였습니다. 지금 한국폴라 경영에서 한발 물러나 고려피엔텍을 맡은 것은 저 자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 회사 회장을 맡은 후 처음 한 일이 ‘종이는 문화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쓴 것입니다. 국내의 인쇄 비즈니스에 국한하지 않고 광고기획을 포함, 모든 제품의 일본진출, 나아가 일본과의 합작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판사가 첫 사업이었는데, 다시 종이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 회장은 자신의 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최근 두 번째 에세이집 《아버지의 편지》를 냈고,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여는 서울 광화문 금호아트센터에서 출간기념회도 가졌다.

이 개인전과 출간기념회는 여느 자리와 달랐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송자 대교 회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대표 등 문화계 재계 인사들도 참석한 이날 기념회에서 그는 케이크 대신 떡을 준비했고, 옥양목으로 만든 꽃타레를 준비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손에 꽃 잡고' 기쁨을 나누는 이벤트를 연출했다. 기타리스트 오승국 씨의 기타 독주 역시 가을 저녁의 화랑을 낭만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했다. 그림 역시 자신만의 작품만 건 게 아니었다. 자신의 그림 20여 점과 팔순이 지난 어머니를 비롯 아들과 조카의 그림을 함께 걸어 가족전시의 훈훈함을 안겨줬다. 이런 점이 한편으로는 경영자적 감각이면서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문화주의자인 이청승의 모습이다.

그가 펴낸 《아버지의 편지》에서도 그런 기운이 물씬 풍긴다. 디자인도 첨단기술이라고 외치는 그는 이번 그림 산문집에 '아날로그 시대의 아버지



가 디지털 시대의 아들에게'란 부제를 단 후 남자로서, 경영자로서,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절절한 편지형식으로 쓴 것이다.

“세대간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쓴 편지들이지요. 디지털이 중요하다고 난리들인데, 아날로그 역시 중요합니다. 아날로그가 없었다면 디지털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근본이 중요한 것이지요. 책에 실린 편지들은 실제로 큰아들에게 편지를 받고 답장했던 것을 모은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를 솔직히 들려주고 싶었죠. 그것이 나 자신을 경영하는 한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경영하는 것, 그건 나 스스로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 자연스럽게 감흥이 우러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한국폴라의 사훈 역시 ‘깨끗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고, 자연스럽게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복문이다. 그 아름다움의 본질을 알게 해준 사람은 어머니라고 그는 고백한다. 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습이야말로 마음까지 포함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때로 경영현장을 제쳐두고 그림 그리는 곳으로 달려가는 화가 이청승의 또 다른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 실례가 1993년 대전 엑스포 꿈돌이 동산에 3백미터나 되는 벽화를 그린 일이다. 꿈동산을 건설하는 데 나선 친구에게 선물할 것을 찾던 그는 벽화를 그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무려 두 달 동안 직원 두 명의 도움을 받으며 벽화에 매달렸다. ‘과학자의 꿈’으로 명명된 4백 평 공간을 칠하는 데만도 도로 40갤런을 소비했다. 여기서 그가 얻은 결론은 ‘벽화는 화가의 재능에 비바람과 시간이 합쳐져 완성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두 달 동안 벽화를 그리면서 단청을 생각했다고 했다. 비바람과 시간이 합쳐져 꿈동산에도 단청과 같은 벽화가 숨을 쉬기를 바라는 소망에서였다.

“한·중·일 문화를 잇는 잡지 베세토BESETO(Beijing Seoul Tokyo)의 앞 두 글자를 딴 것이다) 발행사업과 중국에 세운 북경현우예술대학 이사장으로서의 활동도 꽤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모든 일이 소중하고, 실제로 일을 해보면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한 어떤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CEO의 유형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는 벌써 50대 후반에 이르렀지만 앞으로도 어는 것 한 가지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경현우예술대학이 3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어 자신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며 1년 중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더 짧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였다.

그래도 그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종이와 관련된 일이다. 바로, 문갑사를 창업할 때의 그 청년정신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니와 에세이도, 그림도 그 출발점이 종이이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느낌의 미학을 생각한다고도 했다. IMF관리체제를 지나면서 사람을 멀리하는 대신 술을 가까이 하며 지내다 보니 ‘수지 맞는 것은 사람을 버는 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우리 시대의 소중한 CEO인데, 근육질의 한 마리 말과 다름없는 그도 간밤에 마신 술을 이기지 못해 아침에 간신히 일어났다고 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간밤의 모임을 추적해 보니, 그는 화랑 벽에 걸린 고독한 한 마리 말처럼 《아버지의 편지》 출간을 축하해 준 지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했다. 화가이자 에세이스트이며 경영자이며 교육기관 운영자인 그의 치열함도 가을에는 외로움을 타는 모양이었다. **한·중·일**

취재 임동헌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